

/지역 단신/

영암 민주평통 신호범씨 초청 '통일강연'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회장 박철)는 국제적인 명사를 초청한 '통일정책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영암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신호범(미국명 Paul H. shin) 위싱턴 주 상원부의장과 투르모프(Gennady Petrovich Turmov)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 총장을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북핵과 한반도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호범 부의장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멸종위기동물 1호 '황금박쥐' 합평서 7년새 100마리 증가

합평군 대동면 폐금광 동굴에서 집단서식하던 황금박쥐가 지난 1999년 발견당시 60여마리에서 올해 160여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합평군은 25일 "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 제1호'인 오펜지색 황금박쥐(학명 붉은박쥐) 160여마리가 대동면 덕산리 폐금광 동굴 등 3개 동굴에서 겨울잠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몸 길이 4.3~5.7cm로 진한 오펜지색 몸통에 날개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이 박쥐는 중국 남부와 일본 대마도 등지에서 10마리 미만의 채집 기록이 있을 뿐 수년째 집단 서식지로 발견된 것은 합평지역이 처음이다. 합평군은 합평을 화양근공원에 14억원 들여 '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열리는 2008년 이전까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936㎡ 규모의 '황금박쥐 생태관'을 건립하고 162kg의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 조형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땅끝에 '황토 테마촌'

郡, 101억 들여 건강랜드·문화체험센터 등 2008년 완공

해남군 땅끝에 황토를 활용한 '황토나라 테마촌'이 2008년 건립된다. 해남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총 공사비 101억여 원을 투자해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08년 완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테마촌에 들어서는 1천 평 규모의 황토 건강랜드는 수영장과 진흙탕 놀이터, 노천 스파, 찜질방 등이 결합된 놀이공간으로 돌 지붕을 씌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곳은 황토를 온몸에 바르고 만지면 서 레저를 즐길 수 있어 기존의 테마시설과 달리 레저와 건강을 결합한 새로운 웰빙 공간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황토 도예, 염색 등 창작공간과 체험공간이 결합된 황토 공방촌, 단체 숙박객을 위한 문화체험센터 등도 테마촌의 핵심 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넓은 황토마당을 중심으로 황토길과 장터, 숲속 찻집 등 고향마을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는 민속놀이와, 장터 마당, 땅끝 파시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계획이다. 황토나라 테마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며 필요할 경우 민자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테마촌이 조성되면 해남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해남 땅끝의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보성 차꽃 만개

'다향 보성에서 차꽃의 추억을 담으세요' 보성군 봇재마을 등 차밭에 차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보성군은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는 차꽃의 향기가 요즘 가장 그윽해 많은 관광객이 차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영광군-원전 '바닷물' 갈등

郡 "어민 추가 보상해야" 原電 "국가시설 허가 연장을"

영광원자력발전소의 해수(海水) 사용을 놓고 원전측과 영광군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영광군에 권한이 있는 해수 사용 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돼 양측간의 접점을 찾기 못할 경우 원전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원전은 하루 3천200만톤의 홍농을 계마리 연안 해수를 원전 1-6호기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달 말로 해수 사용기간이 만료돼 영광군으로 부터 새로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광군은 온배수(터빈을 가동한 후 배출되는 물) 배출구로부터 20.2km내의 어업권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보상금 350억원 외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원전측이 반영해야 허가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온배수 피해지역이 당초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조사한 20.2km보다 넓은 27.9km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군으로서 어민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어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수 허가를 쉽게 내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전측은 온배수 피해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만큼, 국가기간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해수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영광원전 국감에서 "영광군이 해수 사용 허가 연장을 해주

지 않을 경우 원전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원전측은 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日 외무성 기자단 고창 방문

일본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 11명으로 구성된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이 25일 고창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창읍성 야간 경관 조명 견학을 시작으로 26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천년고찰 선운사, 북부자주 생산공장을 둘러본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기자단 방문은 고창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일본시장에 고창 복본자를 수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서남해 유례없는 '황금어장'

홍어·꽃게·병어·오징어·조기 등 대풍어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서 흑산 홍어를 시작으로 꽃게, 병어, 오징어에 조기까지 사상 유례없는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풍어가 계속된 데는 적절한 수온, 풍부한 먹이 사슬 형성과 함께 해경의 불법 조업 차단 노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 풍어는 지난 1~3월 흑산도 근해에서 '홍어'를 시작으로 3~6월 진도 근해 '꽃게', 6~7월 신안 일자 '병어', 8~9월 흑산도 '오징어'에 이어 이달들어서는 흑산도 해역 등지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조기가 잡히고 있다. 올해 홍어와 꽃게 어획량은 27t과 79t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으며 병어는 지난 해 2천801t 보다 79% 증가한 3천

550t이 잡히는 대풍어를 기록했다. 특히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 때가 서해로 몰려들면서 급년에 412t이 잡혀 서해안 풍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또 이달들어서는 100여척의 어선이 흑산도 해역에서 하루 평균 4천여의 조기를 잡아 2004년, 지난 해에 이어 연속 3년 풍어의 대기록을 작성중이다. 이에대해 국립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1~2℃ 높은 20~21℃로 고기가 해역에 오래 머무르고 있고 먹이 사슬 환경이 좋아지면서 풍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 등 바다 생태계 보호 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기록

재판부따라 구속기준 '들쭉날쭉'

최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2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임건원 김모(43)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지원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고역을 편취한 혐의가 확실한데도 김씨 등 3명에 대해 '양식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다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지난 9월 목포지원에서는 4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횡령범을 구속시켰고, 부산의 경우도 지난 7월 태풍 피해 관련 국고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엄격한 인신 구속 기준을 적용했다.

물론 영장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소신있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원마다 국고 보조금 횡령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피해규모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챙기다 적발되더라도 법의 관용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 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피해복구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풀릴 새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피해 어민들에게는 턱없이 적게 지급되기 일췌다.

어민들 사이에 '힘도 백도 돈도 없는 서민들만 서럽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국고보조금 횡령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유용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다 천만원 상당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산된다면 어민들의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들어 법원 민원실 문턱이 낮아지고 친절도도 높아지는 등 사법부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자정 노력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이다. 동일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고무를 잦아들게 하는 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여전한 수밖에 없다.



이상휴

(사)H2 기자·목포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심장질환!!

북한의 김영남박사가 발명한 혈액정화기!태양빛을 받는 순간 피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이 기술을 북한에서는 '빛삼' 즉 '빛의 산삼'이라고 부른다.

신.혈관질환에 388만여 명이 고통받고 있다(대한보건협회, 2003. 4. 10)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환 필리핀 사면 기자회담 참여가 철회되는 휴전을 혈액정화기를 과학영어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빛빛을 쬐어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방식, 빛삼은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대한보건협회 공개산학부 (서울의료부)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환 필리핀 사면 기자회담 참여가 철회되는 휴전을 혈액정화기를 과학영어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빛빛을 쬐어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방식, 빛삼은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혈전, 당뇨병 등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

북한에서는 이 기술을 60년대 석탄에서서 삼공혈을 찾아내는 비밀의 생산기술에 비견할 만한 세계적 발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지환 필리핀 사면 기자회담 참여가 철회되는 휴전을 혈액정화기를 과학영어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빛빛을 쬐어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방식, 빛삼은 사할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슬픔에서 행복으로